

토론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예술 활성화 추진

<https://urbantoronto.ca/news/2020/02/2021-year-public-art-primers-plan-citywide-improvement>

<https://www.toronto.ca/explore-enjoy/history-art-culture/year-of-public-art/>

<https://www.toronto.ca/legdocs/mmis/2019/ex/bgrd/backgroundfile-140706.pdf>



토론토에 조성된 공공예술작품

출처: 토론토시 홈페이지. <https://urbantoronto.ca/news/2020/02/2021-year-public-art-primers-plan-citywide-improvement>(검색일: 2020.2.25.)



StreetARToronto 인터랙티브 맵

출처: StreetARToronto map 서비스 홈페이지. <https://streetart.to/>(검색일: 2020.2.25.)

토론토는 공공예술(public art)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고 조성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토론토가 이미 1,500여 점의 공공예술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최근 발표된 ‘공공예술의 해(Year of Public Art)’ 계획에 따라 작품 수를 더욱 늘리고 더욱 활기찬 공공예술문화를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토리(John Tory) 토론토 시장은 앞서 공공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늘리고, 이를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시민과 지역 작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21개 방안을 담아 ‘2020-2030 공공예술전략(Public Art Strategy for 2020-2030)’을 마련하였다. 그 첫 단계로 작년 11월에 2021년을 공공예술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시는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공사비의 1%를 공공예술을 조성하는 데 쓰도록 하는 ‘Percent for Public Ar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기증, 공모전 운영·관리를 통해 300건 넘는 작품을 도시 내에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불법적인 그래피티 예술을 양성화하고 도시미관 개선, 활력 증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StreetARToronto’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treetARToronto’는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거리 예술가들에게 그래피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젝트, 지원금을 제공하며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지원금 범위 등을 조정하여 더욱 많은 공공예술작품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인터랙티브 맵을 통해 DIY 투어가 가능한 데 더해, 거리 예술 도보 가이드 투어가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인기가 높은 현대미술축제 ‘Nuit Blanche’가 2018년에 이어 2020년부터 2개년 테마 기획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작품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계획이 시민들과 예술을 연결시키고 커뮤니티가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동시에 예술가들이 토론토를 그들의 화폭으로 사용하여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